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4호 [주간 제2512호]

주제 107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음력 9월 1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북남수뇌상봉은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통일 의지의 발현

###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통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번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성과적으로 리행되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필리핀조선전선대성 및 친선협회 부위원장은 북남수뇌들의 평양상봉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관문점선언에 명기한대로 북남관계를 가속화해나가는 또 하나의 발전 단계로 된다. 조선민족과 조선반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에 가장 특출한 공헌을 하시는 김정은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린다. 기쁘로스조선문화선선협회 위원장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그이의 모든 발기와 실천적조치들을 지지하고있다. 이번 북남수뇌상봉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조선민족의 념원을 잘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북과 남은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있다. 수뇌회담기간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좋은 관계가 한층 발전되고 그를 통한 공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인민의 결단력있는 노력에 의해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북남수뇌회담은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커다란 정치적사변이라고 하였으며 별

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봉기간 성과적이고 유익한 결실을 마련하시었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은 멀지않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로씨야로스토브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북남조선은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구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낼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반동세력들은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머리를 쳐들지 못할것이며 그들의 책동은 조선의 새로운 평화정착에 의하여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은 조선민족을 통일시키고 진정한 진보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열어나가시려는 김정은각하의 숭고한 민족애와 드림없는 평화수호의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선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번 수뇌회담이 조선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역사적계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다는데 민족적 열매가 적극 기여해나설것을 호소한다.

본사기자

###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레바논근로자련맹은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진행하시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의있는 합의를 이룩하시여 김정은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년이상 지속되고있는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은 조선민족의 념원이며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승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는 올해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관문점선언에 이어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김정은각하의 숭고한 민족애와 드림없는 평화수호의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선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번 수뇌회담이 조선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역사적계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다는데 민족적 열매가 적극 기여해나설것을 호소한다.

본사기자

##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위원장》

남조선잡지 《시사저널》은 10월 10일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위원장의 현명한 령도와 불변불후의 애국헌신으로 평양이 눈부시게 번성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평양남북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방북 등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확 달라진 평양의 파노라마(전경)가 화제에 오르고있다.

대동강변을 따라 들어선 고층주상복합건물과 아바트는 물론 미니(소형)신도시수준으로 개발된 려명거리 등 평양의 모습이 려일 TV방송 등을 통해 소개되고있다. 문제인데대통령도 정상회담만 찬찬히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들어선 고층건물과 평양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제체제를 받고있는 북에서

이러한 건설,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모두를 놀라는 분위기가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대북체제를 이겨낸 북의 저력》으로까지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매체들은 김정은시대를 《주체적축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자신이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겠다고 하였다.

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김정은위원장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결실》이라고 찬양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건설, 건축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있는 데 평양건축종합대학창립 60주년을 맞으며 이곳을 방문하여 《건축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내세웠으며 자신이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겠다고 하였다.

잡지는 최근 김정은위원장이 평양을 대형건축물로 꾸며 거대한 건축전시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최근들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부 인사들사이에서 《대북체제에도 불구하고 북경경제가 호전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고층건물건설이나 수백만대에 이르는 휴대폰(손전화)보급, 야간에도 전력 끊기지 않는 등의 모습에서 이를 느낄수 있었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 개막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이 개막되었다. 《디지털경제시대와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람회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5개년전략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나라의 정보화와 정보산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교육기관, 공장, 기업소, 정보산업단위들에서 내놓은 500여건의 정보화성과품, 정보기술제품들이 전시된 전람회는 전시회, 세계품소개 및 기술발표회, 여러가지 정보기술교류분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전람회에서는 정보화실현과정에 해결한 과학기술적내용과 경제효과과정 등을 심사하고 10대정보화보도비전, 10대핵심기술기업을, 10대핵심기술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개막식이 15일 3대혁명전선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진행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록색건재와 에너지를 절약한 건축, 지능건축, 건축조명 및 불장식의 주제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성, 중앙기관, 과학교육기관, 각 도인민위원회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놓은 350여건의 연구성과와 제품들이 실물, 도해, 모형 등으로 전시되었다. 전시회기간 건축물의 지능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각종 마감건재

본사기자



###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일본과 네팔단체들이 환영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환영하여 일본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마르모토시민회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상봉에서 북남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된것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큰 걸음으로 된다. 이 모든 성과는 김정은위원장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대조선적대시책등을 당장 중지하고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는 이번 북남수뇌 회담에서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관련자들이 노력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조선

##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 중국에서 진행

사 총경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70주년력사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결렬히 옹호고수하고 즐기게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증조친선의 력사를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가실 의지의 표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자욱이 아로새겨져있고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태양의 꽃전시회는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더욱 확대시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다. 한편 기네 피나코리에서는 김일성화은실참관식이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 회담 진행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 회담이 15일 관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리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관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에 따르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한다는

데 대해서와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선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진행시기 등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각 분야별회담의 진행시기와 장소, 의제가 밝혀져있으며 공화국 예술단의 남측지정공연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추진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본사기자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한 역사적리정음표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이 담겨진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다. 북과 남은 공동선언을 통하여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들과 각계각층의 애당과 집중,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다시 잇고 단일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펼칠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간절한 념원이다.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명확히 밝힌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민족의 이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스런 성과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이는 민족의 승결과 강렬한 통일외지로 불라는 겨레의 념이 깃들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

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국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오래 동안 파국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는 마침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족의 경사를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북과 남이 힘을 모아 민족의 기상을 떨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조선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해나가는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선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전적으로 북과 남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9월평양공동선언》 채택에 이르기까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는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늪을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로 치달던 북남관계는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이 이룩되고있다. 북과 남이 평화와 번영으로 향할 수스러운 려정에서 두손을 굳게 잡고 확약한 《9월평양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기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확신있게 내다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나감으로써 평화번영의 시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기야 한다. 한철진

삼천리강토를 한지맥으로 거느리고 거언히 솟아 빛나는 조종의 산 백두산.

하늘을 떠이고 천하를 굽어보는 성산은 장엄하고 신비로운 피부리들마다에 슬기롭고 강의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비껴담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무궁번영의 상징으로 자랑벌쳐온 백두산에 북과 남의 수뇌분들께서 함께 오르시어

###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본향이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반도의 물론 동북아시아에서도 제일 높고 웅장한 산들중의 하나이며 하늘을 떠받들고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흰머리칼이라고 하여 백두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를 하나의 산줄기로 칭하고 그것을 백두대간이라고 불렀으며 조선반도의 모든 산들은 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려 백두산을 우리 나라 산악의 조종이라고 일러왔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 일뿐 아니라 민족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백두산은 고구려평도화강시대의 부분노나 울두지에 대한 이야기며 남이장군의 시, 윤관과 김중서의 보국계획의 이야기들을 비롯하여 선렬들의 무훈담을 수많은 간직하고있다. 백두산을 대한 숭상은 곧 민족에 대한 숭상이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다. 백두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특유의 자량이며 긍지이다. 백두산에 지맥을 이은 하나의 강토에서 백두산을 숭상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민족의 대경사로 감동을 자아내었다. 격양된 가슴을 달래며며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 그 숭고한 응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본향이다. 그러나 분별 70여년세월 우리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불신하고 대결해왔다. 분별의 역사가 우리 겨레에게 안겨준 불행과 고통은 형언할수 없으며 그것이 지속될수록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은 커지고 나중에는 민족적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하기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서 우리 민족이 분별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을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하시며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것을 피력하신것이다.

백두산은 그 어디에서나 보인듯한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은 백두봉에서 문제인대통령과

### 변함없이 지켜야 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

백두산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상징이다. 백두산의 높이는 민족적존엄의 높이이고 백두산의 위용은 민족자주의 위용이며 백두산의 기상은 민족자결의 기상이다. 백두산에 올라서면 슬기롭고 존엄높은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이 한껏 융솟음치고 민족의

맞잡은 손을 하늘높이 추켜들어서 오로써 북과 남은 뿔뿔히 떨어져 갈래갈래가 없을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겨레의 심장에 각인시키고 온 세계앞에 세워주시었다. 이같이 언론훈이 《백두산은 민족의 힘이 어려웠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남만이 한뿌리라는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진원지라는 정서를 주는 상징성이 클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이 백두산에 함께 선 조장만으로도 국제사회앞에 주는 감동도 클것이다.》라고 한것처럼 백두산정에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손을 맞잡아올린 감동스러운 화폭은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수백수천마디의 언설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백두산에 함께 오르신것에 경이로운 마음속에 단일 민족의 넋을 다시금 새겨주시었다.

### 변함없이 지켜야 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

기상을 펼쳐갈 각오가 더욱 확고해지는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민족의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열렬한 애국의 호소라 할수 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에서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한 《9월평양공동선언》의 탄생을 선포하신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두차례의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그에 추종한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었다. 쫓겨 버려지던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대변한 결단과 넓은 포용력, 확고한 통일의지에 의하여 평화번영의 시대,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의 탄생,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탄생은 민족의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열렬한 애국의 호소라 할수 있다.

는 앞길에 어지러운 역풍이 몰아친대도 백두의 산악처럼 흔들림 없이 백두산의 기상처럼 뚝고나아가시려는 드림없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본다.

### 민족의 미래는

민족의 미래는 천지조화가 일어났는가.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과 문제인대통령을 맞이한 백두산의 날씨는 튼튼히 꿰뚫었다. 시시각각으로 햇빛과 비가 교차되고 년중 맑은날이 40일밖에 없다는 변화무쌍한 백두산의 날씨이건만 민족의 위인을 최대의 성의를 다해 맞아들였다. 아니, 삼천리에 밝은 빛을 뿌리는 민족의 태양이 오르신것이며 백두산의 웅건장중한 자태가 남김없이 펼쳐진것이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장군봉마루에서 천리수해를 부강하시는 장면은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 명장면중의 명장면이었다. 백두산정에서 오르시어 환하게 웃으시는 국무위원장님의 모습에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는 태양의 광휘로 눈 빛발을 보았고 온 겨레는 또다시 도래할 미증유의 력사적 사변들을 확신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은 민족의 태양이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을 맞이하시는 순간부터 백두산담수에 이르기까지

족자주, 민족자결의 강한 넋을 심어주시고 자기 운명개척의 의지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은 민족을 이끄실 강한 지도자, 온 겨레가 받들어 모셔야 할 절세의 애국자이다.

### 밝고 창창하다

과격과 흥분, 격정과 환희로 이어진 평양상봉을 통하여 우리 겨레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렬한 민족애, 동포애의 소유자이시고 한없는 덕망과 포용력의 체현자이시며 과감한 결단력과 환 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국무위원장님이시야말로 겨레가 따르고싶어하고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싶어하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은 민족의 미래이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에서 북과 남사이에 놓여있던 대결과 불신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그분의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이 경이적인 현실을 통하여 겨레는 민족의 장래는 그분께 달려있다는것을 절감하고있다. 국무위원장님은 젊으시다. 그분께서 젊으시니 민족이 젊어지는것이고 그분께서 뿌리시는 태양의 열광이 삼천리를 비치니 민족번영의 앞길은 밝고 창창한것이다.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바라보신것은 분별된 강토와 갈라진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막강한 국력과 발전된 문명으로 하여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국가, 그 어떤 전쟁위험도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북과 남이 자유롭게 오고가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 통일강국의 실체였을것이다. 백두산에서 바라보신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은 8천만의 겨레가 간절히 바라는 민족의 미래이고 그 미래는 리상이 아닌 현실로 되어져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어 우리 겨레에게 평화번영의 미래, 통일강국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시었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었다. 북의 이름난 시인 조기천이 1947년에 《백두산》이라는 시에서

산아 조종의 산아 말하라—해방된 이 땅에서 누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 누가 민전의 첫머리에 썼느냐? 라고 해방의 운운을 노래했다.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은 나도 가슴치켜 8천만겨레를 향해 웨치고있다.

분별된 이 땅에서 누가 민족분열의 비운을 가시느냐 누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는가 그것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다 재가나다동포 고진호

## 위 인 의 향 기

위 인 에 게 는 만민을 끌어당기는 인간적향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품성도 그 특유한 향기의 하나이다.

그이께서 평양을 방문한 문제인대통령을 환대하시는데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친품적인 겸허성과 겸손성을 제대로 실감하였다.

평양에 도착한 문제인대통령의 영접행사로부터 평양시민들의 연도환영, 성대한 환영연회, 오찬과 만찬, 환영공연과 백두산동반등정에 이르기까지 평양상봉의 나날 문제인대통령에게 기울인 특별한 배려는 보통의 인간애나 동포애를 초월하여 온 겨레와 세인의 감동을 자아낸 사려깊고 다정한 환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을 위하여 유류관에서 오찬을 마련하신 그날 그곳에서 평양행면을 든 평양시민들이 직접 체험하였고 평양대극장에서 있는 환영공연, 5월1일절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문제인대통령을 위하여 성심성을 다하시는 그의 따뜻한

례의와 웅심깊은 배려에 감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의 최상의 환대에 감동한 문제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비행장까지 나오시어 따뜻한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하였고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신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초청해주셨으며 극진히 환대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정을 표현하고 하였다.

례의에 밝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겸허하고 겸손하신 성품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그이께서는 늘 자신을 인민의 아들, 인민의 복무자라고 하신다.

혁명로병들에 대하여서는 혁명의 선배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대하고있다고 하시며 그들이 로당의장하여 여생을 살도록 각근히 보살피주신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석하신 그이께서 언설하시면서 전체 인민들에게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락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씀하시었을 때 사람들은 인민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그의 무한한 겸손성과 겸허성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절감하며 눈시울 적시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비가 내리는 때면 모두 비를 맞는 데 혼자서 우산을 쓰면 안된다고 사양하시며 찬비를 맞

으시며 공작구나나 건설장을 돌아보신 그이이시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남녀노소들과 사소한 허물도 없이 한데 어울려 정사를 보시는 그의 겸허한 품성과 친화력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있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한다고 하신다.

생생김, 진창질을 앞장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일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애국애족애민의 뜻이고 가르치심이다.

비밀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위인적품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민족과 세인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숭배열은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더욱 강렬하여지고있다.

문제인대통령은 평양방문소감에 대한 한 의신기자의 질문에 《김정은위원장님은 례의마르고 솔직담백하며 년장자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인민앞에 무한히 겸허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위대한 아들, 고매한 인민적정도자의 귀감이시다.

본사기자 리 설

## 친근하신 그의 모습

력사적인 평양수뇌회담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더없이 친근하게 새겨졌다.

스스로도 자신감에 넘치신 언변과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몸가짐, 상대방의 긴장을 순간에 풀어주고 좌중을 화기애애하게 하는 환한 웃음 ... 참으로 그의 숭고한 모습을 뵈는 겨레 누구나가 감동과 매혹, 흥분심을 더치고 있다.

평양수뇌회담에 수행원으로 왔던 남조선의 한 인사는 국무위원장님은 소탈하고 정직하시며 도량도 매우 넓은 분이시라고 하였고 남조선의 인터넷가이드들은 《통이 크신 김정은위원장님 참 멋지다.》, 《모든 인민들이 김정은위원장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는 글들을 련이어 올리였다.

고매한 인품은 아무나 지닐수 있는것이 아니다. 먼길을 찾아온 혈육을 동

구박에 나가 마중하시듯 비행장에 나오시어 문제인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해주시고 포용하시실 때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매한 인품을 제대로 느낄수 있었다.

21발의 페로가 울린 속에 진행된 영접행사와 10만여명이 꽃다발을 펼친 환영연도에서 대통령인행을 떠밀어주시던 다정한 손길에서, 친히 축소인 백화연연비관까지 안내해주시는 다심함에서도 그의 뜨거운 인정이 가슴속까지 안겨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민족화합의 열기를 드높이시고 문제인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앞에서 분별사상 처음으로 언설을 하도록 내세워주시고 백두산에도 함께 오르신 대령같은 도량과 품에서 겨레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현실의 정으로 파도쳐오는 절세의 위인상을 깊이 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뜻

은 2박3일의 나날 행사장마다에 먼저 나오시어 대령내외분을 따뜻이 맞이해주시고 겸허하고 소탈하신 품모로 많은 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감복한 남측의 수행인들과 언론들, 각계층 인민들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최고의 배우》라며 극찬하였다.

북남관계사에서 류례없는 과격적인 배려와 환대는 그대로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민족애, 동포애의 발현이며 그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마음은 절세의 위인께로 더욱 쏠리고있다.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살던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주시는 위인의 따뜻하고 넓은 품이 있어 조선반도에서 가장 70여년간 두렵게 얼어붙었던 불신과 대결의 얼음층도 순간에 녹아 버리고 판문점의 봄, 평양의 가을이 오는 위대한 전변이 이루어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인 민 을 위 한 흥 륭 한 생 율 림 극 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문명강국의 체호에 어울리는 창조적재부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최근에 문을 연 삼지연관현악단 극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자리잡은 극장은 현대적인 건축음향기술이 안반치고 고전미와 현대미, 예술화가 조화롭게 결합된 특색있고 우아한 건축조형미로 형성되었다. 건축장치를 전혀 쓰지 않는 원형생음연주홀도 황홀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창조와 공연활동, 생활을 위한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특음실, 창작실, 혼련실, 분장실, 사무실, 생활실 등도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극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구현된 훌륭한 문화적재부이다.

총래의 건물은 모란봉교에 극장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건물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살리면서 건축미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음향학적으로도 완벽한 생율림극장으로 개건하여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할것을 결심하시고 극장개건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려 400여건의 형성안들과 3 000여페이지 달하는 극장개건관련문건들을 세심히 검토비준하시고 수습자의 직접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극장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치신 그의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극장은 세계

가 관련악생율림극장의 본보기로 완공되게 되었다.

개관을 앞둔 극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일신한 극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수도의 한복판에 멋스러운 건물이 또 하나 들어앉아 풍치를 돌고나고 하시며 인민들이 극장에 와보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극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극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이며 향유물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최상급에서 진행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학관이 구현된 예술의 전당이다.

극장의 내부부 건축미와 예술활동에 필요한 연주홀, 특음실, 창작실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은 음악예술에 조예가 깊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솜씨와 건축미학사상이 응축되어있다.

세계적수준의 생율림극장을 구상하신 그이께서는 극장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음향학적으로 철저히 만족시켜야 한다고 이르시였고 몸소 공사현장을 찾으시어 관현악단연주의 생율림상태도 가능

하여보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없이 건설하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극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극장의 내외부요소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연주홀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도 들어보시고 창작건물, 혼련실건물, 특음실 등을 돌아보시며 시공정형, 운영준비시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건축형식과 내연관현악단 극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주제음악예술발전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전하는 멋쟁이 건축물이다.

있는 만점짜리 음악홀을 건설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설계도 독특하게 잘했고 시공도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극장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율림극장을 해결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계획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아름답고 문명한 극장, 남부럽지 않은 예술활동기지에서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수 있게 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주제음악예술발전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전하는 멋쟁이 건축물이다.

리슬기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이 가져다준 격정과 환희의 열기가 삼천리강토를 뜨겁게 달구고있다.

두차례에 걸치는 판문점상봉에 이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또 하나의 력사적전환점이 마련된 민족사적사변이어서 겨레의 가슴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새차게 높뛰는 것이다.

평양수뇌상봉을 접한 남측동포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태양으로 숭배하는 격찬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리였다.

남조선인내트론론들은

《김정은위원장 직접 나오셨군. 얼마나 영광인가? 태양과 포용하다니 눈물난다.》, 《태양이신 김정은위원장님(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그의 위인상을 전하였다.

태양은 빛과 열을 주는 원천이다. 태양이 뿌려주는 열과 빛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자기의 생명활동을 벌리고있다. 하기에 태양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며 태양이 없는 지구, 태양이 없는 생명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평양수뇌상봉의 감동적인 화폭들을 목격하면서 남녘의 동포들속에서 위인칭송의 열기가 더욱 높아진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몸소 비행장까지 나오시어 문제인대통령과 그 일행을 맞이하시고 뜨겁게 포용하신 열렬한 동포애, 평

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의 대하에 내세워주신 뜨거운 인정미,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이고 방도적인 문제들을

박하신 그의 출중한 모습에서 겨레는 태양의 찬란한 광원을 보았다. 태양의 열원이 있어 따뜻한 봄이 오고 풍요한 가을이 마련되오 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비범한 령도가 있어 얼어붙었던 삼천리강토에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대

중고한 민족애로 8천만겨레를 한몸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어머니, 뜨거운 열과 정으로 불신과 대결의 얼음장을 녹여버리시며 이 땅위에 화해와 단합의 봄, 평화번영의 가을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민족번영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

정종문

#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전민족적인 대회합

얼마전 평양에서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첫사업으로 10.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된 소식은 온 겨레를 기쁘게 해주었다.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삼천리에 더욱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는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전민족적인 대회합이다.

대회에는 남측에서 통일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부산시 시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대표단과 해외측에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

원회 부위원장,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뜻깊은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언설들을 통하여 한결같이 북남수뇌분들의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로 하여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북과 남의 당국과 온 겨레가 개척자가 되고 기관차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데 대하여서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북남관계가 새롭게 높은 단계로 발전해나갈것이라는 데 대하여 토로하면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실천을 적극 추동하는 각계층 동

포들의 운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차게 벌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민족통일대회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평화번영을 향한 겨레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려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동호소문이 발표되었다.

공동호소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며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데 대하여 피력하였다. 또한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접촉과 대상을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며 온 겨레가 뜻과 힘

을 합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리행해나가지고 호소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통일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는데 고무되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갈 의지를 더욱 다들고있다.

10.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인천시장 등 남측대표들은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남북정상이 다시 살린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해나가지는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지속되고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정치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뜻깊은 남북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것이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남조선의 한 언론도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평하였다.

민족의 통일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자욱을 새긴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년초부터 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줄기차게 이끌어오고 있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있는 노력, 온 겨레의 드넓은 통일열의에 의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민족통일대회의 대성과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하는 오늘의 민족사적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지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과 확고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 총열기, 총매진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으로 향한 거족적전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이다.



## 《천지개벽된 평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하자》 — 남조선 각계의 반향 —

역사적인 9월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고 돌아간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이 련일 평양방문소감을 피력하고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원들은 평양이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천지개벽되었다, 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세계적인 거리들이 새

롭게 일떠서고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새에 활기가 넘쳤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거의 10년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한 《대북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평양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등을 중심으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앞으로 평양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들이다. 평양사람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어려있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의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행사로 하고 하면서 선언리행을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을 밝히었다.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나서서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북남관계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는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장령군군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에 따르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한다는데 대해서와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건설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진행시기 등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각 북과 남별회담의 진행시기와 장소, 의제가 밝혀졌으며 공화국에출단의 남측지역공연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추진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이번에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이후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어왔다.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북남장령군군사회담, 북남직접사자회담,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 북남도로협력분과회담,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갈래의 접촉과 교류들도 진행되었다.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과 서울에서는 북남통일통구경기와 북남도동자통일기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남조선에서 진행된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흥분복식에 참가한 북남단일팀이 우승하여 단일민족의

위상을 민방에 떨치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북남단일팀도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민족분열의 오랜 세월 보고싶었던 현물들을 기쁨과 격정속에 만났고 개성공업지구에는 북남당국간 협의의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북남공동협력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북남수뇌분들의 9월평양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이번에 판문점에서 진행됨으로써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천방안들을 마련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언론들도 《남북정상회담결과를 철저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회담》, 《남북철도, 도로건설착공식합의》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북과 남은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이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그 어떤 외풍과 역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 때 평화번영과 민족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한다는 든든한 바탕을 지니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이후 북남관계에서는 당국사이에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며 이어 또다시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온 겨레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새로운 회담으로 눈부는 민족의 숨결과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라는 겨레의 넋이 체현되어있는

##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며 이어 또다시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온 겨레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새로운 회담으로 눈부는 민족의 숨결과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라는 겨레의 넋이 체현되어있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온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도 발표되었다. 공동호소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지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에 이어 진행된 민족통일대회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북남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들은 우리 민족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이루어낸 귀중한 결실이고 소중한 자산이다.

적대와 대결으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면 더 큰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이어서 그토록 감동받은 통일조국이다.

바로 통일조국에 겨레의 삶과 밝은 미래, 민족의 무궁함이 있기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도 있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행사장소에서, 겨레의 통일열기가 끓어번지는 곳에서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나갔다. 이 노래가 한창 불리워질 때에 아이들까지도 뿔을 지어 학교로 가면서 노래와 함께 《조선

1974년 안창만 작사, 성동춘 작곡으로 세상에 나온 가요 《조선은 하나다》는 노래가 나온 역사도 비교적 오래고 공화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통일가요이다.

반만년의 피를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어 이 땅은 하나의 강토, 갈라져 뿔뿔히 헤어져 뿔뿔이 떨어져 나사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노래의 제목이기 전에 분열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8천만 우리 겨레가 터쳐는 피라는 웨침이다.

동강나서는 살지 못하는 생명유기체와 같이 돌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이기에 삼천리금수강산 기복 목적을 가로지르며 분열의 가시철조망이 아프게 드리우던 비극의 그날로부터 통일을 목놓아 웨치던 온 겨레의 절규가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노래에도 있듯이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를 먹고 살았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다.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어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이 강토가 외세에 의하여 장장 70여년동안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노래에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야말려는 우리 겨레의 철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돌이 되면 살수 없는, 돌 합치

서 《반갑습니다》라는 목소리 들렸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서로 《우리》가 되어가고있었다. 《《우리는 하나다!》》 웅원단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경기장이 떠나갈듯 한 환호성이 터졌다. 남북은 하나, 《우리》였다.》고 전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길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페지를 써나가고있다. 북남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적추진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에 이

면 더 큰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이어서 그토록 감동받은 통일조국이다.

바로 통일조국에 겨레의 삶과 밝은 미래, 민족의 무궁함이 있기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도 있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행사장소에서, 겨레의 통일열기가 끓어번지는 곳에서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나갔다. 이 노래가 한창 불리워질 때에 아이들까지도 뿔을 지어 학교로 가면서 노래와 함께 《조선

면 더 큰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이어서 그토록 감동받은 통일조국이다.

바로 통일조국에 겨레의 삶과 밝은 미래, 민족의 무궁함이 있기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도 있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행사장소에서, 겨레의 통일열기가 끓어번지는 곳에서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나갔다. 이 노래가 한창 불리워질 때에 아이들까지도 뿔을 지어 학교로 가면서 노래와 함께 《조선

면 더 큰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이어서 그토록 감동받은 통일조국이다.

바로 통일조국에 겨레의 삶과 밝은 미래, 민족의 무궁함이 있기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도 있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행사장소에서, 겨레의 통일열기가 끓어번지는 곳에서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나갔다. 이 노래가 한창 불리워질 때에 아이들까지도 뿔을 지어 학교로 가면서 노래와 함께 《조선

면 더 큰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이어서 그토록 감동받은 통일조국이다.

바로 통일조국에 겨레의 삶과 밝은 미래, 민족의 무궁함이 있기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도 있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행사장소에서, 겨레의 통일열기가 끓어번지는 곳에서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져나갔다. 이 노래가 한창 불리워질 때에 아이들까지도 뿔을 지어 학교로 가면서 노래와 함께 《조선



# 인민의 기쁨신고, 웃음을 싣고

요즘 평양의 거리에서는 새형의 궤도전차가 만사롭게 시선을 모으며 기세좋게 달리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쾌한감을 주면서도 세련미가 나는 전차의 결모습은 잘 생긴 미남자를 방불케 하는데 변칙적인 수직장식합판이며 포근한 감을 주는 의자들, 액정TV 등을 갖춘 궤도전차안은 마치 잘 꾸러진 방안에 들어선감을 느끼게 한다.

이뿐이 아니다.

새형의 궤도전차에는 제작과 운영원가가 적게 드는 교류전동기가 설치되고 전동기 조종변환기와 조종프로그램이 연구도입되어 차의 기동

과 속도, 제동특성이 이전의 궤도전차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바퀴와 주름륜결부, 유리, 후사경, 바닥고무판, 수직장식합판, 의자 등 기계 및 전기부품들과의 부품들도 대부분 국산화한것들이다.

제재의 광풍은 불지만 세상이 보란듯이 공화국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새형의 궤도전차이다.

원래 궤도전차는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달리는 도시교통수단의 하나로써 력겨수송능력이 매우 높고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 수명이 길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을뿐 아니라 수송공정

원적조종화할수 있는 등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평양시에는 이미전부터 궤도전차가 널리 운영되어왔는데 이번에 공화국의 연구사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궤도전차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인 결과 이처럼 훌륭한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어낸것이다.

새형의 궤도전차를 타본 사람들은 이전의 궤도전차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을뿐 아니라 전차안이 밝고 시원해서 좋다. 뛰니뛰니 해도 남

의것이 아닌 우리의것,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궤도전차여서 더 자랑스럽고 그래서 한번이라도 더 타보고싶은 심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들이켜보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8월 쯤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며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하였다고,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편듯 기분이 들른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전야마다에 물결치는 황금이삭의 설레이소리와 함께 공화국의 여러 과일생산기지에 몸년이 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은 가정들에 그대로 흘러들어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과일군에서 생산된 수많은 과일들을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알았이 어떤 과일들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느끼었다.

지난해 과일군을 찾으시여 가지가 휘어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보고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거렸다고 말할라고 하시면서 정보당 70~80%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수다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루당 평균 200알이상, 최고 300알이상 달린 사과나무들도 많다는데 껌쩍이도 많이 달렸다고 그리고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은 나라의 전철에 내세워야 할 전형단위, 모범단위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특별상금을 배려해 주신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봄내어 틀내 탐욕려 가꾸어 낸 맛좋은 과일들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차례지게 된것이다.

문해경 련화1과일남새상점 판매원은 주민들이 맛이 좋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받아가며 정말 기뻐하였다 하고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어머니들이 더욱 좋아했다고 하였다.

이번에 생산된 과일들은 시안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량이 공급되었다.

이전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공화국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철따라 가지 과일들을 공급해주고있으며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이들이 있는 세대들에 많은 량의 과일을 공급하고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사는 리복희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일군을 휘어지게 하시면서 가지가 휘어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보고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거렸다고 말한다고, 인민들

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대 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였던 괴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정말 감격에 목이 메었다.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보시면 그러도 기뻐하시는 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의미가 이렇듯 총실한 열매로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과일을 받아안고 사람들은 국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공화국의 풍속에서 우리 인민은 반드시 세상에 부럽음이 잘사는 밝은 래일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황금해의 력사와 함께 어제는 인민들의 식탁마다에 맛좋은 물고기들이 오르고 오늘에는 탐스럽고 과일들이 인민들에게 안겨지니 날마다 기쁨을 금치 못하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자기의 힘으로 좋겨운 수확을 거둔 공화국인민들이 남다른 긍지를 안고 맞이한 가을풍경이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 탐스러운 과일들이 집집마다에

#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제재에서도 조선은 자기 힘으로 발전하고있다. 그 어떤 제재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조선은 자립성이 강한 나라,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조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국내상품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있다. 조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상품들보다 자기 나라의것을 더 좋아한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눈부신 기적과 비약을 이루어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각국의 언론들이 전한 내용의 일부이다.

최근 조선을 방문한 서방 사람들은 들던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현실을 목격하고 외부세력의 끊임없는 제재압박책속에서도 실업자가 없고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부모없는 아이들도 행복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평양은 결코 (광고) 용도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 화려한 건물들이 즐지어 있어서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조선이 승승장구하는 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광범히 전하고 있다.

민주평화신문 《라 브로스 베리메》는 최근 조선에서 자강력이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조선의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사회주의 자강건설의 추동력으로 자강력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고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전 선 두 에 는 김정은각하께서 서계신다. 과학기술발전예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는 김정은각하

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식경제강국의 토대가 하나하나 구축되고있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도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체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은 외부세력의 끊임없는 압살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되었다. 아프리카도 조선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만시련을 헤치며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루어나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도 세계언론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로씨야 이르쿠츠크주 동부 씨비리출판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인민은 남이 도와주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고 자기 손으로 조국을 건설한다는 투철한 자존정신으로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냈다. 자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굳건히 고수해온것은 조선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

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교통신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인민은 외부의 압력이 우습게도 조선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는 신념의 강자들이다. 바로 이 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인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조선의 자강력은 조선인민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게 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네팔신문 《프라즈나》도 조선인민이야말로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인민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낸 용감한 민족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불굴의 인민이라고 찬양하였다.

자강력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돌풍을 파감히 쳐



이번에 북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현대적인 거리들과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주저않고 기운차게 돌아가는 공장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

단결력이 강한 나라

북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국가이다.

서방언론들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나 하면서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라고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북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또 공화국장군 70여명속 열병식과 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보면서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고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더 꼭 들어맞는 사회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광장을 꼭 배우며 지나가는 시위대렬, 주석단을 향해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펼쳐지는 황홀한 예술의 무대...

정말이지 이때까지 본적도 없고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것들이었다.

나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것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었다.

이전에 TV를 통해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규모가 대단히 크고 웅장 화려한 공연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번의 공연은 그대외 또다름 감동을 주었다.

레이자빛조명이라든가 무인기의 출현 등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많이 도입된 공연이었고 하늘, 땅, 배경대

들을 보면서 북에 대해 이리 궁지러궁 하는 서방언론들의 평가가 진실을 가리우고 인류가 광명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려는 악선전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강한 나라

등에서 립체적으로 펼쳐지는 예술의 무대가 자연히 사람들을 심오한 극적세계에 빠져들게 하고 저도 모르게 무아경에 휩싸이게 했다.

더더욱 나를 놀라게 한것은 출연자들의 대부분이 일반청소년학생들이거나 근로청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배경대에 앉은 고급중학교

행진이나 열병식)가 있었는데 거기에 천문학적액수의 돈이 들었다는 말을 들은바 있다. 한사람을 동원시키자고 해도 돈을 주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이다.

그런 사회에서 청소년학생들이 애국의 마음으로 펼쳐지는 이런 황홀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무대를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조국의 긍지로운 력사를 세상에 자랑하고싶은 마음, 그 자랑찬 대오속에 자기도 함께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햇빛이 뻗을 내리조이는 한여름의 무더위와 비바람도 이겨내며 이처럼 최상급의 훌륭한 예술의 화폭

감동한것이 국민들이 지니고있는 순박함과 남을 위해 주는 진심어린 마음이였다.

어느날 저녁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실에 물러오다니 우리 차체가 될때까지 시간이 좀 지체되게 되었다. 이때 봉사원처녀가 파자 한봉지를 우리 식탁에 놓아주며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자기 마음으로 알고 받아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단순히 늦어지는데 대한 사과도 아니고 봉사를 위한 봉사라는 더더욱 아니였다. 마음뿐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때 묻지 않은 흰눈과도 같은 순박함을 느낄수 있었고 깨끗하면서도 가식 없는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려주었던것이다.

(아, 이것이 바로 북의 인민들이구나!)

정말 북은 산천도 깨끗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였다.

이런 사회를 두고 마치 사람못살 세상인듯이 불어대는 서방언론들의 행위야말로 진실을 가리우고 인류가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범죄가 아니겠는가.

나 아니면 나라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약육강식의 생존법칙만이 허용되는 자본주의사회가 허는 끝 나하기에 서슴없이 자기를 바쳐 남을 구하는 사회,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이런 세상보다 나은 수 없다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내가 본 평양! 그것은 정녕 인류가 도달하여야 할 미래가 보이는 땅이였다.

재가나다동도 윤성원

## 미래가 보이는 땅

학생만도 2만명이나 된다는데 군대못지 않은 강한 규율성, 일직성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수많은 서방의 어느 한 나라에서 제2차세계대전종결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시가

개끗함과 순결함을 보다

어느날 숙소에서 청밖을 내려다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산업계 박물관과 오수 등으로 하여 오묘한 강물을 서방세계에서 적지 않게 보아온 나였기때문이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대동강기슭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맑고 푸른 대동강물을 보고 서야 이런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북을 방문하고보니 꼭 책에서 본 그 마을에 온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숙소가 대동강변가운데 있는 양각도호였기어서 그런지 한눈에 바라보이는 대동강과 그 주변경치가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을 마련할수 있었다고 본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공연제목이 말해주듯이 북은 사람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으로 아름답고 단결력이 강하여 더욱 빛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이다.

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려주었던것이다.

(아, 이것이 바로 북의 인민들이구나!)

정말 북은 산천도 깨끗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였다.

이런 사회를 두고 마치 사람못살 세상인듯이 불어대는 서방언론들의 행위야말로 진실을 가리우고 인류가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범죄가 아니겠는가.

나 아니면 나라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약육강식의 생존법칙만이 허용되는 자본주의사회가 허는 끝 나하기에 서슴없이 자기를 바쳐 남을 구하는 사회,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이런 세상보다 나은 수 없다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내가 본 평양! 그것은 정녕 인류가 도달하여야 할 미래가 보이는 땅이였다.

재가나다동도 윤성원

# 인민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가는 문화휴식터 문수물놀이장

대동강변의 풍치를 한껏 즐기며 문명의 별천지로 솟아난 문수물놀이장이 준공된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사계절 마음껏 물놀이를 하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쯤까지 갖추어져있는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지난 5년간 250여만명이 달하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물놀이장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실내물놀이장의 흠에 모신 연색석교량상물 우리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신 어머니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물미끄럼틀들과 수영수조, 파도수조를 비롯한 각종 수조들뿐 아니라 휴식터, 한층방, 편의봉사시설 등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엘도라도식 실내물놀이장에서는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사람들이 즐겨찾는 실내체육관도 배구, 풍구, 바드민턴을 하며 승부를 겨루는 근로자들과 베틀라기를 하면서 담을 키우고 용맹을 뽐내는 청년들, 탄력양운동을 하며 웃고 떠드는 어린이들로 흥성이고있다.

여름철이면 금강하물미끄럼틀, 관성물미끄럼틀, 파도식물미끄럼틀, 금상송물미끄럼틀 등 형형색색의 물미끄럼틀들이 즐비하게 펼쳐진 야외물놀이장은 물의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청춘의 기개와 용감성을 시위하며 금강하물미끄럼틀에서 련속 지켜내리는 청년들의 모습, 상쾌하고 아찔한 감을 맛볼수 있게 하는 각종 물미끄럼틀에서 터치는 사람들의 환성은 온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있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물놀이장의 곳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낸 사람들은 우리 인민들이 문명하고 행복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베풀어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순님들도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하게 꾸러진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대하여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인민들의 랑만과 희열이 넘쳐나고 행복의 파도, 기쁨의 물결처럼이는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사랑을 길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 진행

공화국 미술협회의 주최로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가 7일과 14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진행되었다.

미림승마구락부로는 평양시안의 승마애호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왔다.

장애물뛰어넘기경기와 승

마유회경기, 애호가경마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에는 협회 회원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장애물뛰어넘기경기에서 선수들은 능숙한 말조종기술과 대담하고 신속정확한 결심체력으로 빠른 시간내에 장애물들을 재치있게 넘

며 평시에 편마해온 자기들이 높은 마술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승마의 첫걸음을 맨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유회경기에 참가하여 좁은 주로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내달리는 씩씩한 모습은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애호가경마가 시작되자 선수들이 손잡같이 주로를 누비며 경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에서는 미림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경마에 대한 추첨도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종목별순위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장애물뛰어넘기경기에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오성철, 승마유회경기에서는 중구역 창진소학교 학생전경평, 애호가경마에서는 유류대의건설자양성사업소로동자 김만철이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승마열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그들이 건강한 체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대동강이라는 이름의 유래

여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대동강을 《대강》, 《대수》 혹은 《왕성강》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여로부터 변형했던 수도 평양을 감돌아흐른다는 뜻이다.

《대수》, 《대강》은 수도의 강이란 뜻이다. 우리 나라 옛말에 수도를 폐할이라고 하였는데 폐강, 폐수는 폐할의 물이란 뜻이다.

여기에서 《대》자는 평양의 옛이름 《바라나》, 《부루나》의 《바라》, 《부루》자를 리두표기로 쓰면서 한자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강》이나 《수》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왕성강》이란 이름도 임금이 있는 성 나라의 수도에 있는 강이란 뜻이다. 이렇게 불리우던 강이름이 11세기를 전후로 하여 대동

강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대동강(큰 대, 한가지 동, 강 강)의 한자뜻을 보고 많은 강들이 하나로 합쳐 흐르는 큰강이므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 지리책인 《동국여지승람》, 《대동강수경》 등에서 《많은 강들이 모여 흐르기때문에 대동강이라고 이름지었다.》라고 쓰고있다.

그러나 대동강에서 《대동》이란 리두표기를 옛날 우리 말로 따져보면 《한드류》라는 뜻이다.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이고 《드류》라는 말은 《부루》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도시나 수도를 의미하며 또 넓은 벌을 가리켜 쓰던 말이다. 결국 대동강이란 이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수도 평양의 강이란 뜻이다.

## 역사유적 석왕사 응진전

석왕사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자리잡고있다.

석왕사는 50여체의 크고작은 건물들로 구성되어있었는데 동쪽으로 트인 길은 골짜기에 두개의 기본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있었다. 아래쪽의 건축군은 대웅전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며 웃쪽의 것은 응진전을 기본으로 형성되어있었다.

응진전은 석왕사에서 제일 오랜 건물인데 고려말기인 1386년에 세워졌다.

응진전은 비교적 높은 양식을 중심으로 500여 칸, 측면 2칸의 긴 배

## 사화 고구려 화가 담징 (1)

글 리 성 덕, 그림 김 영 희

일본 범룡사의 금당에 그린 벽화는 우리 나라 경주 석굴암, 중국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 3대미술품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이 벽화는 동방미술사는 물론 세계미술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으로서 일본회화사의 첫째지를 장식한 역사적인 예술품이다.

이 걸출한 미술작품은 고구려의 화가 담징(579-631)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동양 3대 미술품중에서 두가지가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 12개의 벽면으로 된 금당의 벽화 《사불정도》는 담징이 그린 창작품인데 그중 특히 우수한것은 제6호벽의 《아미타여래상》과 제2호벽의 《일광보살상》이다.

이 그림들은 그린 때로부터 천여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세계적인 보물로, 만고의 미술품의 하나로 1949년 1월 26일 범룡사가 불타 때 이 벽화도 소실되었다.

1968년에 일본의 수많은

일본류 화가들이 원상대로 복원한 범룡사 금당벽에 벽화를 다시 그리기는 했지만 원화보다 못하다는것을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있다.

그러면 그토록 훌륭하고 걸출한 미술작품은 어떻게 그려졌던가...

고구려 영양왕 21년(610년) 3월에 고구려의 화가이며 승려인 담징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있었다. 승풍이었다. 뜻은 배를 안고 배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밀어간다.

하얗고 눈실거리는 물결 저쪽으로 멀어지는 고국산천, 거리의 땅을 바라보는 담징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그늘이 짙게 어려있었다.

담징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는 승려인 범징은 바다 바람에 펄럭이는 가사자락을 여미며 까딱도 않고 갈판우에 서있는 담징의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30대의 장정, 흰칠한 얼굴과 사나이다운 팔격, 비록 머리를 깎고 몸에는 가사를 걸치었으나 고구려사람의 그 장하고 도도한 기상이 그의 온몸에서 풍겨나오고있었다.

팔복에 감은 녀주와 손에

하는 고구려의 아름다운 강토와 귀중한 그 거대한물을 위하여 성돌 하나 메나르지 못하고 떠나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평생에 열망하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자기의 처지가 원통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애국의 거머되는 초청은 수락되었고 몸은 이미 배에 오른것이다.

마음속엔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바다바람은 순풍이었다.

3월의 봄별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물결을 눈실눈실 가리며 배는 살갗이 일본땅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일본땅에 배를 대이자 범룡사 주지를 비롯한 관리들



금강산의 삼선암

유명한 마식령스키장이 있는 마식령에는 건강식품, 장수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마식령생물이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샘물이라고 할 때 굳에 의한 오염이 없고 회합도가 낮은 물, pH가 약알카리성을 띠뿐 아니라 광물질이 인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것만큼 리상적으로 들어있는 음이온수를 말한다.

마식령산줄기의 스키주로 맞은편 산기슭에서 용출되고 있는 마식령생물이 바로 이러한 기능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샘물은 명숙을 통과하면서 주변암석에서 용출된 광물질성분을 함유할뿐아니라 러과 및 소독작용을 받게 된다.

또한 샘물의 암석바탕과

이동경로에 따라 광물질함량과 물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마식령생물은 마식령산줄기의 천연수림구역에 집중구역으로 하고 화강암층의 깊이동경로를 따라 흐르기때문

## 마식령의 장수샘물

에 굳에 의한 오염이 없다. 회합도가 낮은 이 샘물은 인체의 로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약알카리성(pH 7.2)을 띠고있으며 온도는 8.5℃이다.

샘물에는 칼슘, 칼슘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질들이 균형적으로 들어있어 물의 회합도가 낮아 물맛이 좋고 건강과 장수에 효

과가 있다. 특히 심장부담과 소화장애, 원기회복 등에 좋다.

공화국의 학자들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마식령생물이 회합도가 낮은 소분자물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회합도

가 낮은 물은 사람의 생명활동에 좋은 영향을 주며 인체에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인체를 활성화시킨다.

뿐만아니라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항균성을 가지며 산화작용을 하므로 인체의 고산화물축적을 막고 로화를 지연시킨다.

마식령샘물에 대한 수요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이 샘물을 즐겨마신다는 원산지에서 사는 리호범은 물맛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는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마식령에 와 스키만리지 말고 장수샘물을 마셔껏 마시라고 알려주고싶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즐거움과 광만을 주는 마식령생물은 주제105(2016)년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마식령호수와 마식령생물공장에서는 이 샘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있으며 이 샘물을 마식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론 온 나라의 곳곳에 공급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꽃형청자점시와 원통형청자

최근 10여년간 개성의 만월대 서부건축군 궁전유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과정에 꽃형청자점시와 고려자기로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원통형청자도 발굴되었다.

아름다운 비취색을 띠고있는 꽃형청자점시에는 흙이 채워져있고 그속에 한점의 금속활자가 박혀있었다.

점시는 10개의 꽃잎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었는데 아우리에는 너비가 1cm되는 전이 달려있으며 아우리직경은 10.5cm, 높이는 2cm, 밑창직경은 5cm이다.

점시의 안쪽면에는 도안화된 10개의 국화무늬가 돋우 새겨져있고 아우리전에는 넝쿨무늬가 간결하면서도 섬세

하게 새겨져있으며 점시밑창에도 중심에 작은 원이 새겨져있고 그 둘레에는 3개의 작은 규석발침흔적이 남아있다.

원통형청자는 몸체가 거의 직선으로 되어있으며 윗부분과 아래부분의 중심에는 직경 3.7cm의 구멍이 나있다. 크기는 높이 65cm, 윗직경 20cm, 밑직경 18cm정도이다.

몸체전면에는 큼직하면서도 생동하게 형성된 모란꽃과 넝쿨이 채워져있으며 색깔은 역시 아름다운 비취색을 띠고있다.

이 원통형청자는 그 생김새로 보아 궁전이나 건축물의 풍류를 돌리는데 쓰인 일종의 장식용자기로 볼 수 있다.

금속활자와 함께 나온 꽃형청자점시와 원통형청자는 그 형태의 세련정도와 아름다운 색깔, 섬세한 무늬장식으로 보아 12세기 전반기에

식혜는 여러가지 물고기와 그 부산물에 무우, 쯤쌀밥, 양념 등을 넣어 삭힌 발효식품으로서 함경도지방의 특산물이다.

식혜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제작된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월대 서부건축군에서 발굴된 이러한 유물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물질적자료들을 더욱 풍부히 해주고있으며 해당 시기에 원통형청자와 같은 새로운 장식용자기도 잘안제되어있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민족의 고려자기와 관련한 학술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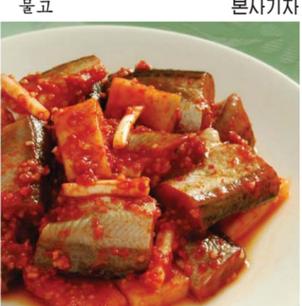
## 민족음식-식혜

식혜를 만드는 음식감으로서는 수산물, 무우, 쯤쌀, 김, 소금, 파, 마늘, 생강, 고추가루, 참깨, 사탕가루가 속한다.

식혜에 들어가는 쯤쌀밥은

식혜를 만든 음식감으로서는 수산물, 무우, 쯤쌀, 김, 소금, 파, 마늘, 생강, 고추가루, 참깨, 사탕가루가 속한다.

식혜에 들어가는 쯤쌀밥은



본사기자

## 유모아 옥심쟁이

한 옥심쟁이가 동무네 집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적게 먹으면 손해라고 생각한 그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 모자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기도 허리 굽혀 집지 못하고 발로 차면서 걸었다.

얼마 안가서 임신부를 만났다. 그는 임신부를 보고 《미

안하지만 내 모자를 좀 집어주시겠소?》하고 부탁하였다.

임신부가 눈을 활짝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눈이 없어요? 난 몸이 불편해 집을수 없단 말이예요.》

옥심쟁이가 임신부의 불룩한 배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공짜밥을 먹고오는 길이구만!》